



뮤지컬 '호프: 읽히지 않은 책과 읽히지 않은 인생'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 공연이 어려워지면서 공연예술계는 관객과 무대의 원활한 만남을 위해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국내 우수 공연 예술을 발굴해 선보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가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과 '올해의레퍼토리' 공연을 CGV 스크린과 네이버 TV를 통해 공개하면서 공연장을 찾지 않아도 가까운 극장과 집에서 다양한 뮤지컬, 연극 등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술위는 국내 우수 창작 초연작을 선정해 CGV에서 독점 상영하는 '아르코 라이브(ARKO LIVE)'를 진행하며, 공연영상 유료 중계 서비스인 '네이버TV 후원 라이브'를 통해 2편의 뮤지컬을 선보인다.

지난해 예술위는 시범사업으로 2019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중 '의자고치는 여인', 무용 'Hit & Run', 전통예술 '완창판소리프로젝트 2 강산제 수궁가', 뮤지컬 '안테모사' 등 네 편을 스크린에 걸었다.

올해는 국내 창작 초연작인 2020 '올해의신작' 4편과 대표 레퍼토리를 위한 재공연 지원사업인 '올해의레퍼토리' 선정작 2편 등 총 6편을 CGV 광주주미점점에서 상영한다.

상영작은 ▲뮤지컬 '시데레우스' ▲뮤지컬 '호프: 읽히지 않은 책과 읽히지 않은 인생' ▲연극 '간느로 가는 길' ▲전통예술 '신 심방곡' ▲무용 '고요한 순환' ▲뮤지컬 '인사이드 윌리엄' 등이다.

이들 중 '시데레우스'가 지난 11일 개봉해 가장 먼저 관객과 만나고 있다. 이 작품은 갈릴레오에게 보낸 케플러의 편지에서부터 시작되며, 이들이 풀어내는 별의 이야기를 스크린을 통해 아름다운 우주의 풍경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오는 3월 초에 개봉하는 뮤지컬 '호프'는 프란

츠 카프카의 유작 반한 소송 실화를 모티브로, 평생 원고만 지키며 살아 온 78세 에바 호프가 자기 삶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렸다. 2019년 한국뮤지컬어워드 대상 등 8관왕을 차지해 화제가 됐다.

'간느로 가는 길'은 1998년을 배경으로 남파간첩과 전직 안기부 요원의 영화 찍기 프로젝트를 다루며, '고요한 순환'은 모든 생명에게 주어진 가장 공평한 것, 윤희적 관점으로 풀어낸 '살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다.

이밖에 심방곡이라는 하나의 큰 뿌리를 통해 독자적이면서도 독창적인 음악을 선보이는 그룹 신노이의 무대인 '신 심방곡',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고 '나답게' 살기 위해 세익스피어 모르게 페이지를 빠져나온 험릿과 줄리엣 두 사람과 명자의 완성을 위해서 그들을 막으려는 세익스피어의 이야기를 다룬 '인사이드 윌리엄'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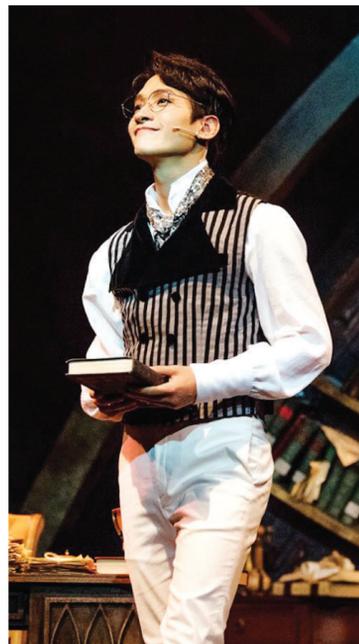
'아르코 라이브'는 극장용 영상제작을 위해 4K 카메라, 지미집, 무인카메라 등 첨단 영상장비를 동원했다. 생생한 음향과 뛰어난 작품 이해도에 따른 적절한 장면연출로 클로즈업으로 무대에 익숙한 공연애호가들은 물론, 초심자 모두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는 '아르코 라이브'와 더불어 온라인 유료 중계 플랫폼인 '네이버TV 후원 라이브'에서도 '창작산실'의 작품들을 볼 수 있다.

2019 올해의신작 뮤지컬 '안테모사'는 오는 22일(관람권 1만2000원·관람권+프로그램북 1만5000원) 만날 수 있으며, 뮤지컬 '호프: 읽히지 않은 책과 읽히지 않은 인생'은 3월 15일과 3월 22일(관람권 2만원) 상영한다. 네이버TV 후원 라이브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전액 예술단체에게 전달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공연을보다 스크린으로 온라인으로

예술위 '올해의 신작·레퍼토리' CGV·네이버TV 공개 뮤지컬 '시데레우스' '호프' 연극 '간느로 가는 길' 전통예술 '신 심방곡' 등



뮤지컬 '시데레우스'



니더위 내더위 맞더위 전통문화관 '무등풍류연' 21일부터 월 1회 진행

양향진 명인 '버꾸놀이' 장면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의 융복합 전통문화예술 프로그램 '2021 무등풍류연' 이 오는 21일 시작된다.

'무등풍류연'은 한 해의 절기와 명절 등 매월 주제에 맞는 전시, 나눔과 이야기, 공연 등으로 꾸려져 월 1회씩 총 12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21일 첫 번째 '무등풍류연'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니더위 내더위 맞더위' 무대로 펼쳐진다. 정월 대보름날 더위를 받아야 그 해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는 '니더위 내더위 맞더위'라고 외쳤던 선조들의 세시 풍습에 맞춰 한 해의 나쁜 기운을 밀어내고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전통탈 방패연 전시', '세화이야기·나눔 '세화반소'', '대보름 버꾸

놀이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먼저 '전통탈 방패연 전시'는 오후 1시부터 전통문화관 솟을대문 일대 부네탈, 소매각시탈, 완보탈, 각시탈, 소무탈 등 전통탈 방패연을 매달아 전시한다. 옛 고향의 정취와 함께 우리 선조들의 웃음과 해학을 보여준다. 같은 시간 입석당에서는 송광무 땃화장(광주시 무형문화재 제21호 땃화장)이 직접 그린 세화를 전시하고, 이윤선(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씨가 진행하는 세화이야기·나눔 '세화반소'를 진행한다.

세화 나눔 행사에 참여하려면 오는 21일까지 전통문화관 홈페이지(www.gtcc.or.kr)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예약을 하거나 행사 당일 오후 1시 라이브 방송에 댓글을 달면 신청 가능하다. 선착순 100명에게는 송광무 땃화장이 그린 세화 작품을 무료로 나눠줄 예정이며, 행사 후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후 3시부터 서석당에서 열리는 '대보름 버꾸놀이 공연'은 양향진 명인의 '버꾸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제6호 통영오광대 보존회 전수조교 이강용의 '문등복춤', 전통타악그룹 굿 '축원덕담가' 등으로 꾸며진다. 관람객은 선착순 20명으로 제한한다.

이번 '니더위 내더위 맞더위'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 대면과 비대면 행사로 병행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며,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땃화장 송광무 작 '세화'

'감정에 대한 명백한 확신'

정송희 개인전, 3월17일까지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정송희 작가 개인전이 3월 17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 1·2관에서 열린다. 지난해 진행한 금호갤러리 청년작가 공모에서 선정돼 기획된 전시다.

'감정에 대한 명백한 확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정 작가는 일상에서 느꼈던 불안을 시각화한 작품을 선보인다. 그의 작품에서 눈에 띄는 건 다양한 컬러감과 패턴들로 자유로운 감정과 상상력을 표현하는 장치들이다.

작가는 하루하루 반복되는 불안한 일상 속에서 자신의 현실과 마주하며 독백한다. 작품에 드러나는 것은 작가의 내면에 감춰져 있던 감정들로 화면을 장악하는 화려한 색감과 절제된 표현된 소재들이 미묘한 조화를 이룬다. 세밀한 붓터치로 표현된 화폭은 시선을 집중시키며 화면에 등장하는 대체로운 오브제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정 작가는 "나의 작업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는 여정"이라며 "작품



'감정에 대한 명백한 확신'

에 담긴 표현들이 보는 이로 하여금 감정의 해소와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정 작가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동 대학원에 재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ACC 어린이문화원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골드위너 수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어린이문화원 전시체험공간이 세계적인 권위의 디자인상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골드위너(GOLD WINNER)를 수상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박태영)과 아시아문화원(ACI·원장 이기표)은 어린이문화원의 '인간과 자연의 조화, 계단식 논'이 '2021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공간 및 건축 부문 골드위너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디자인상으로 손꼽힌다.

이에 앞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 계단식 논'은 지난해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 계단식 논'은 세계문화유산인 필리핀 코르타레라스 계단식 논과 이푸가오족의 삶과 문화에 초점을 맞췄다. 계단식 논 구조를 매개로 아시아성을 담은 체험 콘텐츠로 어린이가 체험물을 만져보고 조작하며 농사체험이 가능하다. 식물 체험 외에도 영상 애니메이션, 미디어 체험도 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인간과 자연의 조화, 계단식 논'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